

‘비둘기파’ 우세한 금통위... 금리 내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중 4명이 새 품게 교체되면서 29일 시장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새로 추천된 금통위원 후보 4명의 성향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신임 금통위원들이 참여하는 5월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금통위원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4명이다

한은 금통위원 4명 교체... 5월 통화정책 방향 관심 쏠려

입기는 4년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일단 채권·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에서는 신임 금통위원들이 관료·정부 유관기관 출신으로 대부분 친(親)정부 인사인 점을 감안해 비둘기파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조 교수의 경우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재정경제부를 거친 관료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직했고, 2013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조동철 교수는 지난해 5월 “2년간 물가 목표치 2.5~3.5%를 밀도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해야한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차례 통화완화 정책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추천된 뒤인 고승범 상임위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도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낸 적은 없었지만 관료 출신과 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되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금융감독위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등을 거쳤고, 신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직인사위원회에 참여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반면 한은이 추천한 이일형 원장은 대체적으로 ‘매파로’ 구분되고 있다. 이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대외경제 전문가다. 이 원장은 최근 한 자리에서 “경기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 침체에서는 금리인하의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민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임 금통위원들이 정부 유관 연구기관장과 금융위 상임위원 등 정부 친화적 인물들로 구

성된 만큼 ‘도비시(비둘기)한 성향을 가질 것’이라며 ‘이번 신임위원 중 다소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지닌 위원은 한은 추천의 이일형 원장 정도’라고 평가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4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친정부 인사라는 점을 볼 때 비둘기파 성향이 우세하다”며 “한국 경제가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2%대 중반의 성장률이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는 시간 문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신임 금통위원 발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를 나타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제 3년물 금리는 0.016%p 내린 1.47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간 것은 채권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주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가 매파에 가깝고 함준호 위원이 중립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금통위는 비둘기파와 매파간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 보는 시각도 많다. 더욱이 신임 금통위원들이 임명 이후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김명실 KB금융 선임연구원은 “금통위원 후보 발표 이후 채권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강해졌지만 금통위원 성향과 관련해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이 강해 시장 강세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진수 기자

모든업종, 무담보 은행대출 가능해진다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출 받는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관계형금융 취급 대상을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형금융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숙박업 외 기타 업종들도 앞으로는 재무 정보 이외의 기술력, 업계 평판, 사업 전망 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형 금융은 기업 기술력, 성장 가능성, 대표자 경영 능력, 거래 신뢰도 등 비재무적인 경영 정보를 활용하는 대출 방식으로 신용도가 낮지만 사업성은 있는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관계형 금융은 지난 2014년 11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861건 1조8837억원 규모로 진행했다. /인진수 기자

GM, 4년 연속 ‘에너지스타 파트너 상’ 수상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는 지난 28일 미국 환경보호국이 친환경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에너지스타 챌린지 프로그램의 최고상인 ‘에너지스타 파트너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GM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에너지스타 파트너 상을 수상함으로써 친환경 분야에서 최고의 글로벌 친환경 기업임을 입증했다.

‘에너지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은 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최소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GM은 매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한해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약 5.6% 절감한 바 있다. GM이 지난 2010년부터 절감한 에너지 비용 및 CO2 배출량은 각각 2억3700만 달러와 1,800만 톤에 달한다.

제임스 델루카(James Deluca) GM 글로벌 생산부 총괄 부사장은 “GM은 지난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개발을 위해 70억4천만 달러를 재투자 한 바 있다”며 “GM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차량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KT가 선보이는 소물인터넷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KT가 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을 활용한 ‘자전거 도난관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작년 인터넷·모바일 전자지급액 역대 최대

온라인 쇼핑 늘어난 영향으로 하루 평균 2524억 돌파

지난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한 전자지급서비스 금액이 하루 평균 2524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통계 발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용건수도 하루 평균 1940만건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액이 건수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거래건당 평균 금액도

지난해 1만741원에서 지난해 1만8007원으로 늘었다.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 결제, 전자회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전체 서비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PG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7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4% 뛰었다. 이용건수도 362만건으로 17.7% 상승했다.

온라인상에서 카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이 늘어난데다 PG사들의 가맹점 확대에 따라 실적이 크게 늘어난 영향

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소매판매 및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83조9837억원으로 19.1% 상승했다.

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확장된 이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에스크로 이용액도 일평균 4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고, 이용건수도 114만건으로 7.4% 늘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건수는 1388건으로 전년 대비 11.1% 상승했다. 이용액도 3.3% 증가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인진수 기자

IT 엑세서리 전시회, 7월말 개최

제6회 IT엑세서리·주변기기전 2016(KITAS 2016)이 ‘FUTURE UNLIMITED’ 라는 주제로 7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센서와 스마트카 디바이스 특별관을 신설해 전시 품목을 늘린다. 스마트센서 특별관의 출품품목은 IoT(사물인터넷)와 웨어러블, 모바일 헬스케어의 핵심인 에너지 하베스팅·물리, 화학, 광, 바이오, 비콘 관련 스마트센서 등이다.

스마트카디바이스 특별관은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에 필요한 블랙박스, 카미러링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은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들은 7월1일까지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 대상의 스타트업 부스도 준비돼 있다. /인진수 기자

카카오, 선거후보 및 투표 절차 정보 서비스

카카오가 4·13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과 다음앱을 활용한 선거 서비스를 선보인다.

29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검색 서비스 ‘샵(#)검색’과 다음 앱은 ▲선거 일정과 투표 절차를 담은 ‘선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프로필·선거이력을 볼 수 있는 ‘후보자’ ▲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소’ ▲화제의 지역구와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여론조사’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대화 입력창의 ‘샵(#)’버튼을 누르고 ‘총선’ ‘투표소’ ‘후보자 이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 아래에 놓인 ‘채팅방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 지인들과 선거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 선거 당일에는 ‘샵(#)검색’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총선 개표방송’을 검색해 카카오톡 친구들과 대화하며 개표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